

## 알차고 의미있는 휴가를 바라며



정보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

6월의 뜨거웠던 함성도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판속에 어김없이 여름은 왔건만 별로 계절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고참이라는 사실만이 아닐 것이리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네 삶에서 계절마다 적기에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우리네 직장이 마냥 고맙기만(?) 할 뿐이다.

여름휴가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는 벅찬 희망이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네 연륜이 쌓인 고물카들은 별로 내키지 않은 계절인 것 같다.

특히, 우리네들 고3생이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러하리라.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까지도 수험생을 둔 이유로 고생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는 사실인즉, 그네들에게 휴가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스럽고 주위의 휴가 분위기가 완전 차단되어 그 영향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험자는 그 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리라!!!

또 다른 경우는 수험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다 커서 부모와 같이 동행을 꺼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업도 보충 시켜야하고 남 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보는 등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 반하여 그 자제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보호(?)와 감시 눈길을 피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서로 상반된 행동의 충돌이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도 꼭 즐거운 하계휴가만은 아닐 것이라 사료된다.

나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했으니 한숨 돌릴만도 한데, 이젠 웬지 그런 풍파를 다 겪고 난 후에 오는 공허감이 더욱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이유는, 또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쉬는 날이면 움썹달싹 안하고 집에만 있으려 하는 이유를 나이드는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인생이 서글퍼지기까지 하는 맘 어쩔 수 없으리라.

신세한탄의 얘기는 접어두고 젊은이들의 여름휴가야말로 자신의 인생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격변의 시기일진데 이 무더운 여름이 가기전에 평생 잊을수 없

는 추억만들기를 하든가 아니면 온 열정을 불태울 나만의 일에 몰두를 해본다 든가 또는 좁은 국내무대가 아닌 해외로 나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을 넓히든가 하여 이 인생의 황금기를 유효 적절히 보내야 할 것임을 젊은이들은 다 깨우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이든 이들의 여름휴기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일만이 그들의 몫일 뿐일 것이라.

이렇듯 우리의 여름휴기는 강하고 약하고, 풍요롭고 가난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재미있고 없고 하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누구든 휴기라는 쉼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누리는 자의 위치와 주위 환경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즐거울 수도 있고 피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무덤덤 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점만은 분명하다. 누구에게든 휴기는 주어져야하고 부담없이 즐겨야한다.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놀이 문화가 상실되어 왔었음은 그 누구도 아는 바이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한정된 기간내에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하지 못한 놀이문화로 휴기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새롭고 창조적인 놀이문화로 다양한 휴기를 맞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삶은 단 한번뿐이고 또한 열심히 놀 수 있는 자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